

Research Center

2015년 4월 14일

투자전략 Daily

- **글로벌전략**
구조적 장기침체론이 주는 시사점
- **이머징마켓 동향**
부양 기대 등으로 주요 이머징 동반 상승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영원무역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KCC 외 5개 종목
- **산업/기업분석**
음식료 · 담배, 건자재, 금호타이어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캘린더**

자산배분전략 | 노근환 ☎ 3276-6226
투 자 전 략 | 박소연 ☎ 3276-6176
시 황 분 석 | 김대준 ☎ 3276-6247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계 량 분 석 | 안 혁 ☎ 3276-6272
파 생 / ETF | 강승철 ☎ 3276-6181
스몰캡전략 | 정훈석 ☎ 3276-6232
이머징마켓 | 윤항진 ☎ 3276-6280
채 권 분 석 | 이정범 ☎ 3276-6191
크 레 디 트 | 김기명 ☎ 3276-6206
해 외 채 권 | 진은정 ☎ 3276-6231

truefriend 한국투자 증권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4/6(월)	4/7(화)	4/8(수)	4/9(목)	4/10(금)	4/13(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46.43	2,047.03	2,059.26	2,058.87	2,087.76	2,098.92	
	등락폭	1.01	0.60	12.23	-0.39	28.89	11.16	
	등락종목	상승(상한)	473(7)	405(5)	455(10)	455(6)	509(4)	450(13)
		하락(하한)	339(0)	398(0)	361(1)	359(0)	313(0)	363(0)
	ADR	117.08	121.30	125.02	124.25	124.31	126.12	
	이격도	10 일	100.58	100.58	101.10	100.90	101.97	102.18
		20 일	101.24	101.12	101.52	101.28	102.45	102.71
	투자심리	70	70	70	70	80	80	
	거래량 (백만 주)	460	436	553	530	658	550	
	거래대금 (십억 원)	4,769	4,861	6,518	6,046	6,415	6,950	
코스닥	코스닥지수	662.15	666.83	668.03	676.96	682.02	689.39	
	등락폭	4.11	4.68	1.20	8.93	5.06	7.37	
	등락종목	상승(상한)	473(15)	405(17)	455(21)	455(20)	509(26)	470(23)
		하락(하한)	339(0)	398(0)	361(0)	359(0)	313(0)	515(2)
	ADR	103.14	107.70	108.99	107.55	106.07	106.17	
	이격도	10 일	101.97	102.29	102.21	103.04	103.15	103.59
		20 일	103.38	103.74	103.54	104.53	104.92	105.62
	투자심리	70	70	70	70	80	80	
	거래량 (백만 주)	524	550	561	595	602	704	
	거래대금 (십억 원)	3,202	3,719	3,773	3,773	4,220	4,587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4,120.2	1,614.0	1,201.2	275.4	144.9	268.7	118.9	39.2	354.097	56.8
	매도	4,097.9	1,333.3	1,489.7	305.3	174.4	442.5	113.3	26.7	427.6	71.3
	순매수	22.3	280.7	-288.5	-29.9	-29.5	-173.8	5.7	12.5	-73.5	-14.5
	4월 누계	9.0	790.3	-664.4	-148.2	-10.3	-939.5	93.5	38.2	302.0	-134.8
	15년 누계	-1,394.8	3,937.3	-3,650.8	-2,460.3	62.9	-3,509.6	-279.2	154.1	2,381.2	1,108.3
코스닥	매수	4,064.3	322.8	203.0	59.9	24.1	59.2	25.2	4.8	29.9	31.8
	매도	4,063.5	267.9	248.1	72.2	24.7	52.9	21.8	8.1	68.4	42.4
	순매수	0.8	54.9	-45.1	-12.4	-0.7	6.3	3.4	-3.3	-38.4	-10.7
	4월 누계	143.1	92.9	-175.9	-63.8	21.6	-89.8	-19.3	0.7	-25.4	-60.0
	15년 누계	664.2	-119.9	50.1	-143.3	179.9	-88.9	-102.0	23.7	180.8	-594.4

구조적 장기침체론이 주는 시사점

2015년 Target KOSPI	2,130pt
12MF PER	10.00배
12MF PBR	0.97배
Yield Gap	8.3%P

- ▶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
- ▶ IMF의 경고: 향후 5년 동안 선진국과 EM 잠재성장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
- ▶ 투자 측면의 시사점: 미국 실질 금리는 장기간 마이너스권에 머무를 필요 존재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의 핵심(Essence)은 이와 같다.
경기 회복이 약하고 초기에 사그라진다.
불황은 스스로 증식해 견고해져 고치기 어려운 실업을 남긴다"*
- Alvin Hansen -

■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

'구조적 장기침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1930년대 미국의 경제학자 Alvin Hansen이다. Hansen은 인구 노령화와 기술 진보 속도의 둔화로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면서 구조적 장기침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Hansen의 예측은 명백히 틀렸다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Hansen의 전망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예측의 시기가 조금(?) 빨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전 재무장관이자 한때 가장 유력한 연준 의장 후보였던 로렌스 서머스를 꼽을 수 있다. 서머스는 현재 미국 경제가 구조적 침체에 빠진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폴 크루그만(MIT), 올리버 블랑샤르(IMF), 리차드 쿠(Nomura), 레이 달리오(Bridgewater Associate) 등은 구조적 장기침체론에 동의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다¹.

구조적 장기침체에 빠진 경제에서 문제는 통화정책의 딜레마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이고 명목 이자율은 0%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완전고용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때 중앙은행이 (1)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올려 실질금리를 더욱 하락시키거나 (2) 금융버블을 용인해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 두 가지 비정상적 정책을 펼쳐야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로렌스 서머스는 2000년대 이후 미국 경제는 버블이 나타난 상황에서만(IT 버블, 주택 버블) 완전 고용을 달성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¹ 물론 구조적 장기침체론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다. 예를 들어 지난 3월에 제임스 해밀턴(UCSD), 메단 해리스(Merrill Lynch), 잰 헛지우스(Goldman Sachs), 케니스 웨스트(University of Wisconsin)는 구조적 장기침체론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2015.3.1, "The Equilibrium Real Funds Rate: Past, Present and Future").

중앙은행의 정책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1) 완전 고용 (2)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3) 금융 안정성을 달성하는 것이다. 앞의 예에서 살펴본 대로 구조적 장기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세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통화정책의 딜레마인 것이다. 그래서 로렌스 서머스는 인프라 투자와 같은 정부의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선진국들의 재정부채가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역시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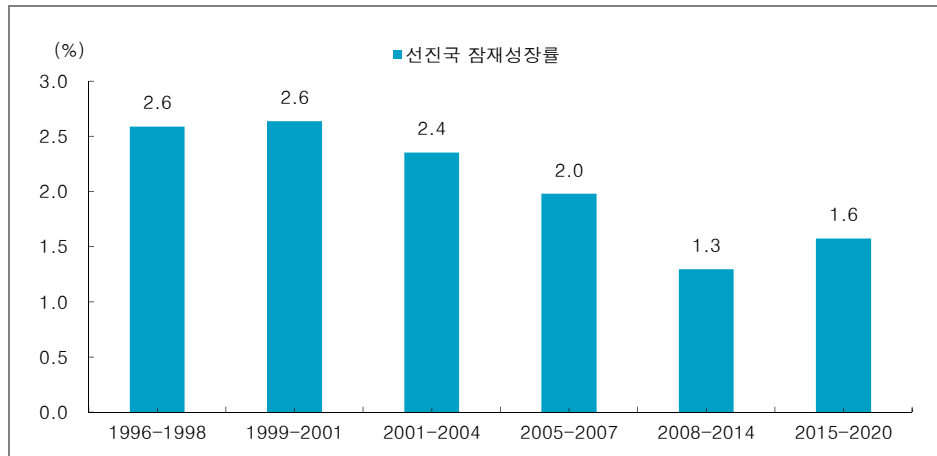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가 구조적 장기침체에 빠졌다면 실질이자율이 마이너스권에서 머무는 저금리 시대가 예상보다 장기간에 걸쳐 펼쳐질 것이다. 설사 미국이 정책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이자율이 크게 오르는 것은 어렵다. 또한 중앙은행들이 직면한 딜레마로 인해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는 자산버블이 잉태된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구조적 장기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인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가 정말 구조적 장기침체에 빠진 상황으로 봐야 할까?

■ IMF의 경고

이러한 가운데 IMF도 2015년 상반기 WEO(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구조적 장기침체론을 지지하고 나섰다. IMF는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난 저성장, 노동, 자본, 생산성 등 구조적 요인의 변화에 의한 것이며 따라서 앞으로도 세계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회복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 보고서에는 구조적 장기침체론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선진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흥미로운 점은 선진국의 잠재성장률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하락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2015-2020년 잠재성장률도, 지금보다 소폭 개선되지만 금융위기 이전보다는 현저히 낮은 1.6%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저성장 국면이 단지 금융위기로 인한 일시적인 충격 때문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에서 기인한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림 1] 선진국의 잠재성장률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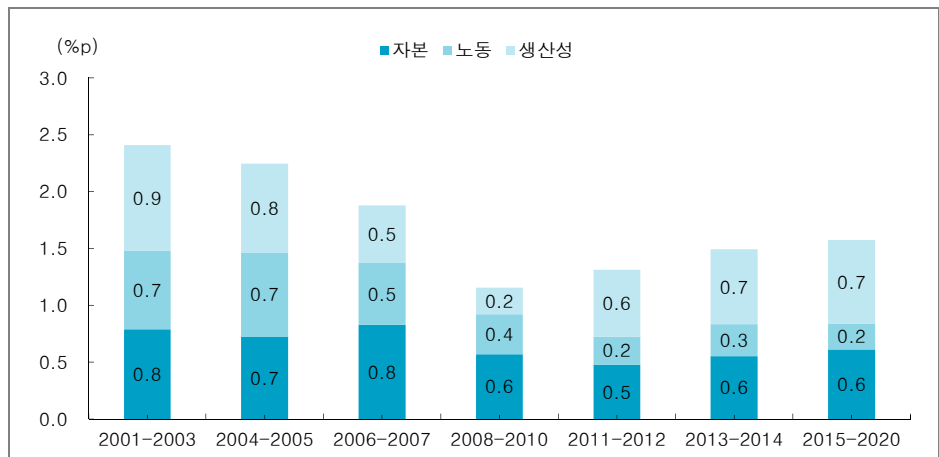


자료: IMF, 한국투자증권

선진국의 잠재성장률을 요인 별로 분석해보면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생산성 변수 때문에 잠재성장률이 하락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기까지 선진국의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원인으로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1990년대 말~2000년대 초에 IT 기술 대중화로 인해 생산선 개선 폭이 워낙 컸기 때문이다. 둘째, 2000년대 이후 생산성 개선 속도가 느린 서비스업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셋째,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교육으로 인한 한계 효용이 감소했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생산성 증가 속도가 개선되었지만 IT 대중화 시기 정도의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앞으로 선진국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은 노동 측면일 것으로 보인다. 노동 요인으로 인한 선진국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2001-2003년 0.7%p에서 2011-2012년 0.2%p로 급감했다. 또한 2015-2020년에도 0.2%p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크게 하락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일본, 한국의 상황이 가장 안 좋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2] 선진국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은 생산성(금융위기 이전)과 노동요인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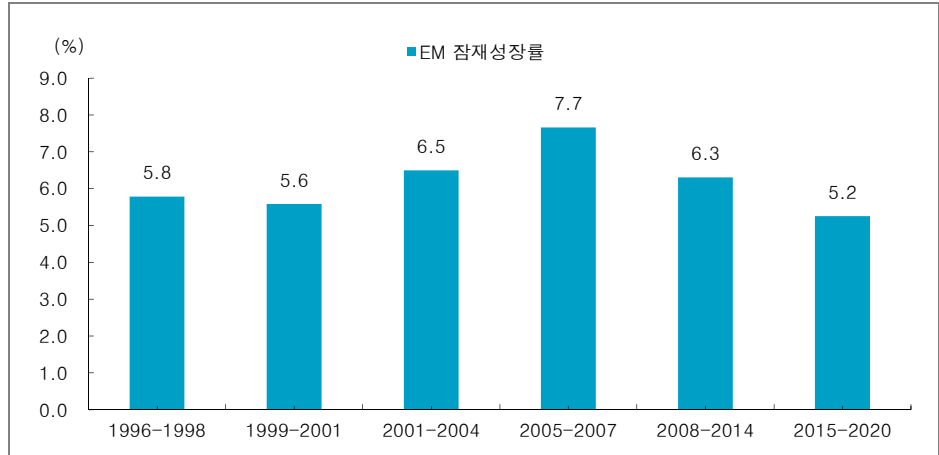


자료: IMF, 한국투자증권

금융위기 이전까지 EM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생산성 및 자본투자 요인에 의해 급증했다(1996-1998년 5.8%, 2005-2007년 7.7%). EM의 생산성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1) 제조업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기술이 이전되고 EM의 설비가 현대화되었으며 (2) 자원이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 쪽으로 집중되었고 (3) 경제가 성장하면서 사회의 구조조정도 수반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EM의 잠재성장률은 극적으로 바뀌고 있다. 2008-2014년에 잠재성장률은 6.3%로 하락했고 2015-2020년에는 5.2%까지 떨어져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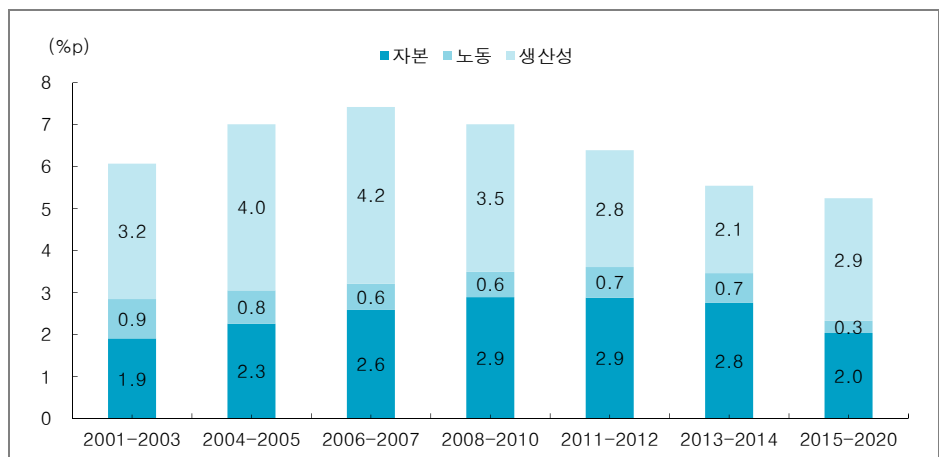
[그림 3] 금융위기 이후 EM 잠재성장률은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자료: IMF, 한국투자증권

그런데 요인 별로 잠재성장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보면 금융위기로 인한 수요 측면의 요인보다 공급 사이트의 구조적인 변수가 잠재성장률 하락을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린 가장 큰 요인이 생산성이었기 때문이다. 생산성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2006-2007년 4.2%p에서 2013-2014년 2.1%p로 감소했다. 반면 노동 및 자본 기여도는 금융위기 전후로 큰 변화가 없었다(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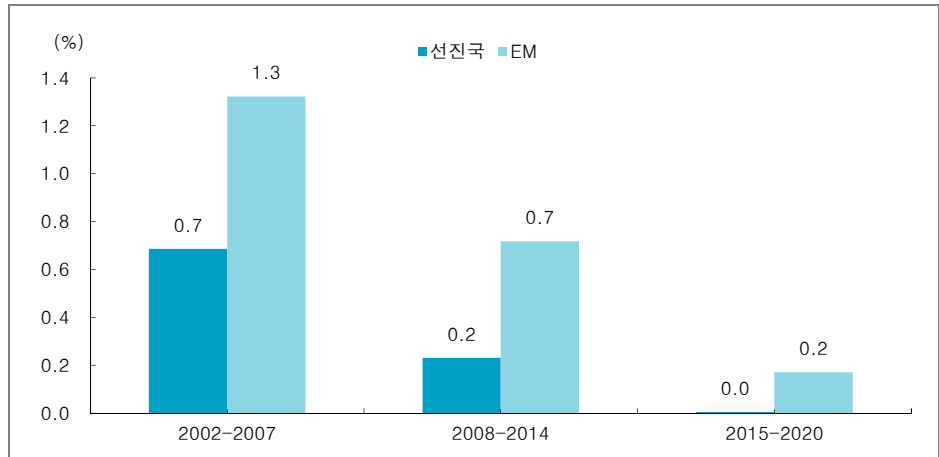
[그림 4] 금융위기 직후 생산성 요인에 의해 EM 잠재성장률 하락. 향후 노동 및 자본 측면



자료: IMF, 한국투자증권

2015-2020년 선진국의 잠재성장률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EM의 성장률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노령화로 인해 노동 부문에서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향후 5년은 선진국과 EM 모두 노령화로 인해 노동 변수의 성장 기여율이 급격히 축소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림 5] 향후 5년 동안 고령화로 인한 노동 요인의 성장 둔화가 급격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자료: IMF, 한국투자증권

결론적으로 IMF는 향후 5년 동안 선진국과 EM의 잠재성장률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IMF는 구조적 장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전세계 정부가 (1) 특허 강화, R&D 투자 등을 통해 혁신을 지속하고 (2) 인프라 투자를 늘려야 하며 (3) 여성 노동 참여율을 높이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투자 측면의 시사점

‘구조적 장기침체론’은 투자자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까? 우선 성장률에 대한 기대치를 낮출 필요가 있다. 국가의 경제성장률, 기업의 사업계획, 개인의 기대수익률 등 경제주체의 모든 관점에서 현실적인 기대치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금리가 장기화되고 국가마다 금리의 방향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그 이후 전개되는 국면은 1994년, 1999년, 2004년과 금리 인상 시기와는 다르게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도 공급 측면에 의한 ‘구조적 장기침체’ 리스크를 완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오르더라도 크게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앞서 언급한 중앙은행의 딜레마로 인해 자산버블이 빈번히 나타날 것이다. 역사적으로 중앙은행들은 완전고용과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모르는 척 하는 경우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폴 크루그먼은 미국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버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인플레이션 조짐 없이 버블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 서머스의 답은 우리 경제가 버블이 있어야 완전 고용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버블이 없다면 균형 이자율은 장기간 마이너스권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 - (폴 크루그먼, 2013.11.16, “Secular Stagnation, Coalmines, Bubbles, and Larry Summers”)

[그림 6] 구조적 장기침체론이 맞다면 미국의 실질 금리는 장기간 마이너스권에 머무를 필요가 있음



자료: FRED, 한국투자증권

■ Appendix: Global Asset Monitoring

〈표 1〉 주식 / 원자재 / REIT 기간별 수익률 순위

(단위: %)

5D	1M	3M	YTD	1Y						
1	홍콩 주식	10.3	중국 주식	21.4	RBOB 가솔린	42.6	중국 주식	26.6	중국 주식	92.2
2	중국 주식	6.0	러시아 주식	19.9	러시아 주식	35.4	러시아 주식	26.4	일본 주식	42.6
3	일본제외아시아 주식	4.2	홍콩 주식	16.2	이탈리아 주식	27.6	독일 주식	26.2	독일 주식	32.8
4	영국 주식	4.1	WTI	15.5	중국 주식	26.6	RBOB 가솔린	26.0	인도 주식	27.6
5	스위스 주식	3.7	EMEA 주식	11.8	독일 주식	24.5	이탈리아 주식	25.6	유럽 주식	22.5
6	프랑스 주식	3.5	라틴아메리카 주식	11.7	프랑스 주식	22.1	프랑스 주식	22.6	홍콩 주식	20.3
7	독일 주식	3.1	브라질 주식	11.6	유럽 주식	21.8	유럽 주식	21.3	프랑스 주식	20.0
8	러시아 주식	2.9	신흥국 주식	10.1	스페인 주식	17.9	홍콩 주식	17.2	미국 주식	15.8
9	신흥국 주식	2.9	일본제외아시아 주식	9.6	일본 주식	16.5	스페인 주식	14.3	스페인 주식	15.1
10	유럽 주식	2.7	면	7.0	홍콩 주식	14.3	일본 주식	14.1	전세계 REIT	14.6
11	일본 주식	2.6	스페인 주식	6.5	브라질 주식	12.8	일본제외아시아 주식	11.0	스위스 주식	14.1
12	라틴아메리카 주식	2.6	은	5.8	WTI	12.8	호주 주식	10.2	이탈리아 주식	12.6
13	한국 주식	2.6	한국 주식	5.7	호주 주식	10.3	한국 주식	9.6	일본제외아시아 주식	11.5
14	캐나다 주식	2.4	영국 주식	5.2	일본제외아시아 주식	9.9	브라질 주식	8.4	멕시코 주식	11.1
15	이탈리아 주식	2.2	이탈리아 주식	5.1	한국 주식	9.5	신흥국 주식	8.2	호주 주식	9.8
16	남아공 주식	2.2	프랑스 주식	4.6	남아공 주식	8.5	영국 주식	8.0	남아공 주식	9.3
17	브라질 주식	2.1	캐나다 주식	4.5	캐나다 주식	8.5	면	7.4	선진국 주식	8.6
18	미국 주식	1.7	금	4.4	난방유	8.5	EMEA 주식	7.4	대만 주식	8.5
19	스페인 주식	1.6	아시아 REIT	4.4	영국 주식	8.4	남아공 주식	7.2	영국 주식	8.0
20	멕시코 주식	1.5	유럽 주식	4.4	멕시코 주식	8.2	스위스 주식	5.4	캐나다 주식	7.9
21	인도 주식	1.3	전세계 주식	4.1	신흥국 주식	7.8	은	5.2	전세계 주식	7.9
22	전세계 주식	1.1	독일 주식	4.0	면	7.7	캐나다 주식	5.2	아시아 REIT	6.9
23	호주 주식	1.0	선진국 주식	3.5	EMEA 주식	6.5	인도 주식	5.0	한국 주식	5.1
24	구리	1.0	스위스 주식	3.4	전세계 주식	6.2	전세계 주식	4.5	브라질 주식	4.5
25	EMEA 주식	1.0	일본 주식	3.4	선진국 주식	6.0	선진국 주식	4.1	신흥국 주식	1.9
26	선진국 주식	0.8	난방유	3.4	인도 주식	5.3	멕시코 주식	4.0	알루미늄	-4.8
27	설탕	0.7	원자재 전체	3.0	대만 주식	4.7	대만 주식	3.9	코코아	-6.4
28	대만 주식	0.7	남아공 주식	2.7	미국 주식	3.9	전세계 REIT	2.9	금	-8.7
29	LME금속지수	0.6	RBOB 가솔린	2.6	구리	3.8	미국 주식	2.1	EMEA 주식	-9.3
30	원자재 전체	0.5	전세계 REIT	2.6	스위스 주식	2.0	금	1.6	구리	-9.7
31	코코아	0.5	커피	2.6	LME금속지수	0.0	아시아 REIT	0.3	LME금속지수	-9.9
32	아시아 REIT	0.5	호주 주식	2.5	그리스 주식	-0.5	WTI	-2.8	러시아 주식	-17.0
33	난방유	0.4	구리	2.5	라틴아메리카 주식	-0.9	구리	-2.8	은	-17.9
34	그리스 주식	0.1	미국 주식	2.4	원자재 전체	-1.2	알루미늄	-3.4	라틴아메리카 주식	-20.7
35	알루미늄	-0.5	밀	2.0	전세계 REIT	-1.2	난방유	-4.1	밀	-21.4
36	니켈	-0.6	멕시코 주식	2.0	알루미늄	-1.3	라틴아메리카 주식	-4.2	옥수수	-24.6
37	WTI	-0.7	LME금속지수	1.9	아시아 REIT	-2.0	코코아	-4.4	설탕	-24.9
38	면	-0.9	인도 주식	1.3	금	-2.5	LME금속지수	-4.9	니켈	-26.1
39	전세계 REIT	-1.1	알루미늄	1.2	옥수수	-2.6	옥수수	-5.4	면	-27.3
40	금	-1.2	대만 주식	0.9	은	-4.4	원자재 전체	-5.6	원자재 전체	-29.8
41	밀	-1.7	옥수수	0.5	대두	-4.6	그리스 주식	-6.1	커피	-34.4
42	RBOB 가솔린	-1.8	대두	-1.4	밀	-5.3	대두	-6.4	대두	-34.8
43	옥수수	-2.4	설탕	-1.5	코코아	-6.3	설탕	-11.6	그리스 주식	-39.6
44	대두	-2.5	그리스 주식	-5.1	설탕	-14.0	밀	-12.0	난방유	-39.6
45	커피	-4.1	코코아	-6.6	천연가스	-15.5	천연가스	-13.9	RBOB 가솔린	-40.0
46	은	-4.3	천연가스	-8.8	니켈	-17.4	니켈	-16.6	천연가스	-46.1
47	천연가스	-6.1	니켈	-10.1	커피	-25.0	커피	-18.9	WTI	-50.1

주: 2015.4.12 종가 기준, 국가별 대표 주가지수 이용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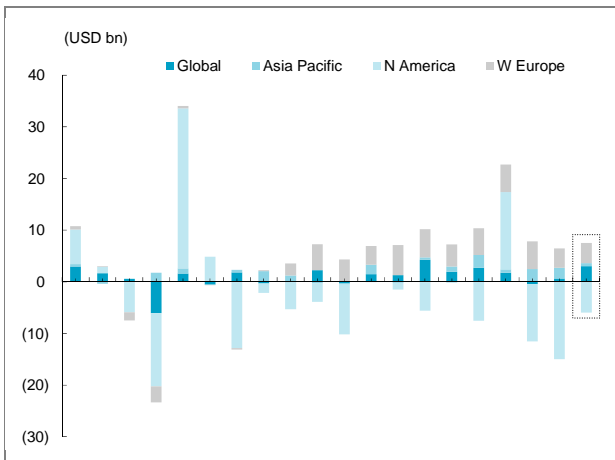
<표 2> Global Index Universe

(단위: %, X)

	EPS Growth (% YoY)		PE (X)		ROE (%)		PB (X)		EPS Changes (%)		Price (% Change)		Div Yield (%)
	FY1	FY2	12MF	Z-val	12MF	Z-val	12MF	Z-val	4W	24W	4W	24W	
MSCI AC WORLD	3.1	12.7	15.8	2.0	12.5	(2.2)	2.0	1.6	(0.9)	(1.0)	(1.5)	7.0	2.6
MSCI WORLD	2.2	12.8	16.5	1.9	12.6	(2.1)	2.1	1.6	(0.8)	(1.0)	(1.6)	8.1	2.5
MSCI WORLD ex US	3.3	12.0	15.7	2.0	10.7	(2.1)	1.7	1.7	(0.9)	(1.0)	(1.3)	4.8	3.1
MSCI EM	8.7	12.2	11.7	2.3	11.9	(1.7)	1.4	0.1	(1.2)	(1.6)	(1.2)	(1.8)	2.9
MSCI EM ASIA	12.7	10.6	11.7	2.1	12.3	(1.7)	1.4	(0.1)	(0.6)	(0.8)	0.3	7.0	2.6
MSCI EUROPE	2.9	13.1	16.0	2.1	11.5	(1.8)	1.8	1.9	(1.1)	(1.5)	(1.6)	4.4	3.4
MSCI EM EUROPE	(8.3)	13.4	7.2	2.0	8.7	(2.0)	0.6	(1.3)	(1.6)	(4.2)	(3.6)	(16.1)	4.2
MSCI NORTH AMER	0.6	13.8	17.0	1.8	14.5	(2.3)	2.5	1.4	(0.8)	(1.0)	(1.9)	9.5	2.1
MSCI EM LATIN AMER	7.6	18.5	13.3	1.6	11.9	(1.2)	1.6	0.9	(4.9)	(3.2)	(5.8)	(25.3)	3.4
미국	1.4	13.5	17.1	1.8	14.8	(2.1)	2.5	1.4	(0.7)	(0.9)	(1.8)	10.6	2.1
영국	(9.9)	14.3	15.1	2.0	11.8	(2.3)	1.8	1.1	(2.6)	(2.2)	(1.8)	5.4	4.2
일본	8.1	14.5	14.9	1.4	9.1	1.4	1.4	1.6	(0.4)	0.5	1.0	27.2	1.9
캐나다	(10.0)	19.3	16.7	2.3	10.4	(2.6)	1.7	0.7	(2.1)	(2.6)	(1.4)	7.1	2.9
프랑스	13.1	14.4	16.1	2.3	9.8	(1.5)	1.6	2.1	(0.9)	(1.6)	3.3	24.2	3.2
스위스	(4.9)	9.2	17.7	1.9	14.4	(2.7)	2.5	1.3	(0.3)	(1.5)	1.7	9.5	3.2
독일	11.2	10.5	15.2	2.5	12.1	(0.9)	1.9	2.6	(0.1)	(0.2)	5.9	35.6	2.7
호주	(1.0)	0.1	16.1	1.9	12.3	(1.7)	2.0	1.4	(0.5)	(1.0)	(0.8)	12.9	4.6
스웨덴	17.4	11.2	17.0	1.8	13.8	(0.5)	2.4	1.8	0.5	0.2	0.5	29.2	3.7
스페인	17.7	17.6	15.4	1.6	9.3	(0.8)	1.4	1.6	(0.3)	(0.9)	5.1	13.4	3.6
홍콩	(0.4)	8.8	15.2	1.1	8.1	(1.3)	1.2	(0.0)	(1.1)	(0.5)	(0.8)	5.6	3.0
네덜란드	16.2	10.3	17.0	2.1	12.4	(0.4)	2.1	2.3	(0.3)	(1.1)	3.0	30.2	2.8
이탈리아	40.0	20.6	15.5	2.2	7.2	(1.0)	1.1	2.2	(1.7)	(4.1)	4.7	18.6	3.4
싱가포르	3.3	9.2	13.5	0.3	9.8	(0.9)	1.3	(0.6)	(0.9)	(0.1)	1.0	7.0	3.7
벨기에	12.9	8.9	18.6	1.9	12.4	1.9	2.3	2.1	(0.5)	(0.0)	1.7	31.6	2.9
덴마크	10.7	16.2	19.7	2.5	18.1	2.4	3.6	2.9	(0.9)	(0.3)	10.3	36.1	2.1
핀란드	3.0	6.2	18.2	1.9	12.9	1.3	2.3	2.0	(0.1)	0.5	1.7	23.3	3.8
노르웨이	(13.2)	11.4	12.3	1.8	10.3	(2.6)	1.3	(1.2)	(1.8)	(1.9)	(0.3)	4.4	4.1
이스라엘	7.0	2.5	11.6	2.3	9.1	(1.7)	1.1	(1.0)	(0.4)	0.2	9.0	23.5	2.7
아일랜드	24.0	22.7	18.2	(0.3)	10.3	1.8	1.9	2.2	1.7	1.0	0.8	33.6	1.6
오스트리아	1,169.4	28.3	12.4	1.5	7.3	(1.3)	0.9	0.6	(0.9)	(22.0)	1.8	18.8	3.2
포르투갈	37.8	17.4	15.5	0.7	9.9	0.6	1.5	1.4	0.5	(0.5)	3.5	6.1	3.6
뉴질랜드	2.3	9.7	18.9	1.2	10.0	(2.2)	1.9	0.4	(0.8)	(0.6)	(4.8)	6.6	4.8
중국	4.8	13.1	10.3	2.1	13.0	(1.9)	1.3	0.0	(1.4)	(0.8)	3.7	16.0	3.0
한국	28.7	6.3	10.0	1.7	9.9	(1.8)	1.0	(1.0)	0.4	(1.5)	1.0	5.2	1.6
대만	10.3	7.3	12.6	(1.5)	13.7	1.8	1.7	0.5	0.3	1.0	(1.0)	10.0	3.6
인도	15.7	18.3	17.3	2.1	15.4	(1.2)	2.7	1.9	(1.0)	(1.2)	(4.6)	7.5	1.6
말레이시아	5.9	9.1	15.7	1.3	11.5	(2.3)	1.8	(1.8)	(1.7)	(1.5)	0.3	1.4	3.2
인도네시아	8.8	13.8	15.5	2.0	19.3	(1.5)	3.0	0.2	(0.5)	(0.6)	1.4	15.6	2.5
필리핀	11.9	13.2	20.1	1.4	14.6	(1.2)	2.9	1.0	(0.9)	(0.3)	2.1	15.5	2.0
태국	17.2	14.9	13.6	1.7	14.1	(2.1)	1.9	(0.1)	(0.9)	(2.1)	(1.3)	(2.0)	3.3
브라질	(0.5)	20.0	11.1	1.5	11.3	(1.4)	1.3	0.2	(7.9)	(4.3)	(0.6)	(13.0)	4.6
칠레	20.4	19.1	15.3	0.1	10.4	(0.9)	1.6	(0.7)	(1.2)	(1.1)	(0.6)	2.0	3.5
콜롬비아	(5.5)	46.5	14.7	0.1	7.9	(1.3)	1.2	(1.2)	(1.5)	(5.9)	(0.6)	(16.8)	2.4
멕시코	32.1	12.6	17.9	0.7	13.4	(0.6)	2.4	(0.1)	0.4	(0.7)	0.2	1.0	2.0
페루	7.1	22.3	13.1	1.1	14.2	(1.1)	1.9	(1.1)	(1.3)	(1.7)	(4.7)	(4.9)	1.8
체코	7.7	(3.5)	14.6	2.1	9.9	(1.2)	1.4	(0.1)	2.7	0.4	3.7	5.6	5.4
이집트	86.8	21.3	12.6	2.0	12.4	0.1	1.6	1.4	0.8	(5.9)	(1.8)	7.8	3.1
그리스	119.1	50.0	9.3	(0.6)	7.0	(0.6)	0.6	(1.0)	(6.5)	386.8	(10.3)	(33.5)	2.8
헝가리	32.4	38.7	11.9	3.2	7.9	(1.3)	0.9	1.4	(0.6)	(3.6)	14.8	14.0	3.2
폴란드	17.5	6.3	13.7	1.2	9.5	(0.8)	1.3	1.0	(0.9)	(0.4)	3.2	(0.2)	4.0
러시아	(17.8)	12.4	5.0	0.5	7.7	(2.4)	0.4	(1.5)	(1.9)	(5.6)	(4.3)	(18.3)	4.9
남아공	3.9	14.0	16.4	2.1	14.6	(2.2)	2.4	1.4	(0.4)	(1.1)	1.9	15.2	3.1
터키	12.5	14.3	9.5	(0.2)	13.3	(1.6)	1.3	(1.1)	(0.2)	(0.0)	(4.2)	7.3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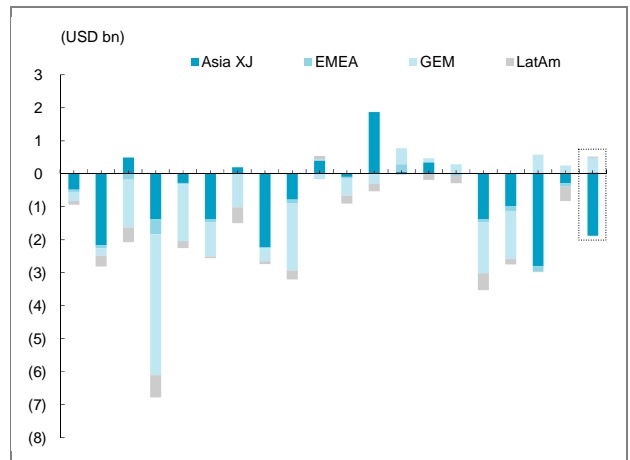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한국투자증권

[그림 7] 주식형 주간 펀드 플로우 - 선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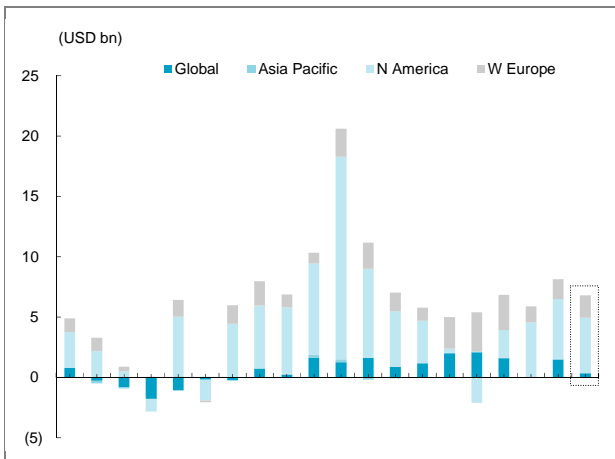
주: 표시한 부분은 4/2 - 4/8 기간 플로우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그림 8] 주식형 주간 펀드 플로우 - 신흥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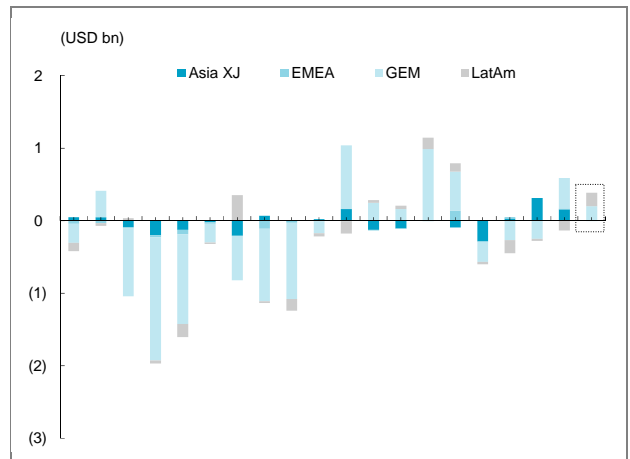
주: 표시한 부분은 4/2 - 4/8 기간 플로우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그림 9] 채권형 주간 펀드 플로우 - 선진국



주: 표시한 부분은 4/2 - 4/8 기간 플로우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그림 10] 채권형 주간 펀드 플로우 - 신흥국



주: 표시한 부분은 4/2 - 4/8 기간 플로우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표 3> COT(Commitments Of Traders) Report – Non Commercial Position

Category	Commodity	Price Weekly Chg	Number of Contracts		52-Week Z-Score		
			Weekly Chg	Net Position	Price	Net Position	Net Position Weekly Chg
1	CBOT 2 YR US TREASURY NOTES	(0.2%)	(13,592)	125,376	(0.93)	2.14	↘
2	CBOT 5 YR US TREASURY NOTES	(0.3%)	(72,252)	(101,550)	1.46	(1.77)	↘
3	CBOT 10 YR US TREASURY NOTES	0.4%	(48,617)	(162,427)	1.68	(0.93)	↘
4	CBOT 30 YR US TREASURY NOTES	0.5%	(3,482)	13,760	3.15	0.13	↘
5	CBOT ULTRA-LONG U.S. TREASURY BONDS	0.4%	14,912	(32,290)	1.39	(1.51)	↗
6	CME S&P 500 STOCK INDEX	0.3%	3,039	9,711	1.12	1.08	↗
7	CME E-MINI S&P 500	0.3%	(13,370)	(48,405)	1.11	(0.63)	↘
8	CME E-MINI NASDAQ 100	0.1%	6,975	59,276	1.13	0.60	↗
9	CBOT E-MINI DJIA	0.5%	2,992	9,265	1.10	(0.36)	↗
10	CME BRITISH POUND STERLING	(0.1%)	2,329	(34,301)	(1.67)	(1.12)	↗
11	CME EURO	0.8%	11,302	(215,258)	(1.80)	(1.29)	↗
12	CME CANADIAN DOLLAR	1.3%	(401)	(30,019)	(1.60)	(0.85)	↘
13	CME MEXICAN PESO	2.3%	7,364	(22,925)	(1.32)	(0.53)	↗
14	CME AUSTRALIAN DOLLAR	0.3%	(15,925)	(40,281)	(1.68)	(0.83)	↘
15	CME JAPANESE YEN	(0.4%)	(525)	(24,449)	(1.24)	2.28	↘
16	CME NEW ZEALAND DOLLARS	0.2%	1,747	5,778	(1.23)	0.06	↗
17	CME SWISS FRANC	0.7%	(586)	120	(0.81)	0.85	↘
18	CME BRAZILIAN REAL	1.9%	(851)	(8,034)	(2.06)	(0.12)	↘
19	ICE US DOLLAR	(0.6%)	(337)	72,806	1.80	1.30	↘
20	CME 3-MONTH EURODOLLARS	0.0%	(4,048)	379,518	(1.84)	1.66	↘
21	CMX GOLD	2.3%	20,738	100,757	(0.70)	(0.11)	↗
22	CMX SILVER	1.5%	(1,031)	42,081	(0.71)	1.15	↘
23	CMX PLATINUM	2.7%	3,621	28,394	(1.17)	(0.53)	↗
24	CMX PALLADIUM	4.6%	298	16,064	(1.17)	(1.99)	↗
25	CMX COPPER	0.8%	(842)	(4,996)	(0.93)	0.88	↘
26	ICE COTTON	5.3%	6,046	40,000	(0.24)	1.09	↗
27	ICE COFFEE	6.8%	4,333	1,440	(1.57)	(2.29)	↗
28	ICE SUGAR	7.0%	3,138	(13,535)	(1.91)	(1.04)	↗
29	ICE FROZEN ORANGE JUICE	(5.2%)	(56)	(3,441)	(1.97)	(1.44)	↘
30	ICE COCOA	3.2%	(5,859)	25,982	(1.49)	(2.54)	↘
31	CBOT WHEAT	2.8%	5,566	(43,211)	(0.57)	(0.82)	↗
32	KCB WHEAT	1.1%	3,543	(4,540)	(0.85)	(1.24)	↗
33	MGE WHEAT	1.3%	2,005	1,136	(0.60)	(1.21)	↗
34	CBOT SOYBEAN	(0.2%)	3,248	(11,038)	(0.84)	(0.61)	↗
35	CBOT CORN	1.8%	(14,479)	89,895	(0.26)	(0.99)	↘
36	CBOT SOYBEAN OIL	2.1%	6,212	29,733	(0.92)	(0.28)	↗
37	CBOT SOYBEAN MEAL	(2.2%)	(12,003)	28,471	(1.21)	(1.60)	↘
38	CME FEEDER CATTLE	(0.2%)	762	3,630	0.15	(0.62)	↗
39	CME LEAN HOGS	0.2%	(5,561)	(15,054)	(1.48)	(2.61)	↘
40	CME LIVE CATTLE	1.0%	10,061	66,978	0.81	(0.64)	↗
41	NYM CRUDE OIL	13.4%	25,348	252,043	(1.11)	(0.99)	↗
42	NYM GASOLINE RBOB	4.5%	930	63,753	(0.72)	0.03	↗
43	NYM NATURAL GAS	1.5%	(3,301)	(225,918)	(1.56)	(0.97)	↘
44	NYM HEATING OIL	3.8%	(4,874)	(33,796)	(1.33)	(1.39)	↘
45	ICE EUROPE GASOIL	2.7%	1,966	(18,288)	(1.19)	(0.66)	↗
46	ICE NATURAL GAS HENRY HUB	1.5%	(23,415)	(21,766)	(1.56)	(1.17)	↘
47	ICE CRUDE OIL, LIGHT SWEET	13.4%	10,970	35,736	(1.11)	(0.45)	↗
48	CME MILK (class III)	0.9%	(1,214)	11,017	(1.45)	0.16	↘

주: Price Weekly Chg 는 COT Report Data 와 동일 기간 기준으로 계산
 자료: CFTC,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표 4〉 Global Sector Universe

(단위: %, X)

	EPS Growth (% YoY)		PE (X)		ROE (%)		PB (X)		EPS Changes (%)		Price (% Change)		Div Yield (%)
	FY1	FY2	12MF	Z-val	12MF	Z-val	12MF	Z-val	4W	24W	4W	24W	
US-Energy	(59.2)	61.6	28.3	3.7	6.0	(2.9)	1.7	0.4	(1.0)	(6.5)	(1.5)	(1.9)	3.1
CH-Energy	(41.0)	42.4	14.1	4.4	6.6	(2.5)	0.9	(1.3)	(8.1)	(7.1)	(1.6)	(10.4)	2.8
US-Chemicals	2.6	14.3	16.5	1.2	21.9	2.0	3.6	1.6	(0.3)	(0.7)	(4.6)	9.9	2.2
GE-Chemicals	6.7	10.5	17.7	2.7	14.9	(1.3)	2.6	2.7	0.6	(0.6)	7.2	34.1	2.7
AU-Metals	(36.6)	(10.9)	15.6	2.7	9.5	(2.1)	1.5	(1.7)	(2.4)	(6.4)	(8.2)	(5.9)	5.0
US-Aerospace	2.8	10.3	16.5	1.5	25.0	1.0	4.1	1.7	(0.0)	(0.6)	(1.4)	17.8	2.1
US-Industrial Congl	6.5	6.7	15.9	1.0	9.2	(2.7)	1.5	(1.5)	(0.2)	(0.3)	(3.1)	9.7	3.0
GE-Industrial Congl	10.2	6.9	14.2	1.6	17.4	(0.5)	2.5	1.1	(0.0)	(1.7)	2.8	18.9	3.6
US-Machinery	(6.2)	8.8	15.9	1.3	17.4	(1.3)	2.8	1.0	(0.6)	(1.0)	(3.2)	5.7	2.3
US-Logistics	13.7	12.6	17.4	0.7	29.9	1.3	5.2	1.1	(0.4)	(0.7)	(4.5)	5.4	2.0
US-Automobiles	40.9	15.5	10.1	0.5	19.2	(0.6)	1.9	0.0	0.5	(0.6)	(1.6)	13.0	3.0
GE-Automobiles	13.6	10.8	11.1	2.4	13.1	0.4	1.5	3.1	0.3	0.7	6.7	52.2	2.9
JP-Automobiles	13.5	13.5	10.5	(0.0)	12.8	0.9	1.3	1.2	(0.2)	0.4	0.4	29.9	2.6
US-Apparel	1.0	14.7	22.2	1.9	21.6	(0.8)	4.8	1.4	(1.9)	(1.0)	0.6	13.8	1.1
FR-Luxury	20.7	10.7	19.6	3.2	14.5	0.3	2.9	2.2	0.2	(0.5)	2.3	39.8	2.2
SW-Luxury	7.9	10.2	17.2	1.2	13.6	(3.6)	2.3	(1.2)	1.6	(2.4)	(5.4)	1.2	2.1
US-Restaurant	10.1	15.7	21.7	1.9	26.8	1.8	5.8	2.1	(0.8)	(1.5)	(1.1)	14.6	2.3
US-Media	11.5	16.6	18.9	1.3	19.0	0.8	3.6	1.2	(0.9)	(0.2)	(3.6)	14.2	1.2
US-Internet Retail	17.6	35.7	51.0	1.9	16.6	(0.2)	8.4	1.5	(1.3)	(2.8)	(4.7)	15.0	0.0
US-Multiline Retail	7.2	11.0	17.8	1.9	22.6	3.3	4.0	3.1	(0.7)	0.9	3.8	27.8	1.8
US-Specialty Retail	11.2	13.8	19.9	2.1	38.1	1.8	7.6	2.2	(0.4)	(0.1)	0.6	28.8	1.4
US-F&S retailing	6.3	11.1	19.3	2.2	17.7	1.2	3.4	2.2	(0.6)	(0.3)	0.5	20.9	1.9
US-Beverage	(0.3)	8.4	20.6	1.8	29.8	4.1	6.1	2.8	(0.3)	(0.6)	(3.6)	2.1	2.7
SW-Food Products	(21.1)	8.1	22.9	2.2	14.3	(3.6)	3.3	0.5	1.0	(0.8)	(2.1)	7.5	2.7
US-Food Products	5.3	9.5	19.1	2.2	16.5	2.7	3.2	2.7	(1.0)	(0.8)	3.7	13.2	2.2
US-Tobacco	(3.1)	7.2	17.5	1.9	3,021.2	-	529.9	0.1	(0.3)	(1.0)	(9.5)	(0.0)	4.8
US-HH Products	(14.7)	18.5	22.3	3.8	31.9	(1.6)	7.1	1.8	(3.4)	(2.5)	(1.3)	(0.3)	1.5
FR-PS Products	15.3	7.2	27.2	2.4	15.6	1.0	4.2	3.2	1.3	0.2	6.4	40.7	1.8
US-Biotechnology	16.7	20.7	19.1	0.4	33.0	1.5	6.3	1.3	(0.3)	(0.3)	(0.4)	22.3	0.6
US-Pharmaceuticals	5.2	12.2	17.0	1.2	19.5	(1.5)	3.3	0.7	(0.1)	0.0	0.4	15.8	2.5
US-Financials	15.2	11.1	13.8	1.1	9.1	1.1	1.3	1.2	(0.2)	(0.4)	(1.2)	7.6	2.2
CH-Banks	5.7	6.6	5.5	(0.0)	15.9	(2.1)	0.9	(0.6)	(1.0)	(0.2)	2.4	21.3	5.9
JP-Banks	1.6	(3.0)	10.1	0.5	7.5	0.8	0.8	0.7	0.9	1.4	(2.3)	21.5	2.6
US-Internet	9.1	18.5	24.1	1.2	13.1	(2.7)	3.2	0.1	(0.2)	(0.6)	(1.2)	8.0	0.1
CH-Internet	29.1	31.2	32.5	1.1	27.9	(0.8)	9.1	1.0	(0.8)	(0.3)	8.8	29.8	0.3
US-IT Services	3.5	9.9	16.4	2.2	31.4	(2.2)	5.2	0.9	(0.2)	(1.5)	(1.7)	12.8	1.5
US-Software	(2.6)	17.3	17.3	1.6	20.9	(1.6)	3.6	1.2	(2.2)	(1.2)	(3.3)	5.6	1.8
US-Comm Equip	1.6	7.7	13.4	1.1	20.6	1.5	2.8	1.6	0.1	(0.7)	(4.6)	9.5	2.6
US-Computer	23.3	8.3	12.9	1.3	30.1	2.0	3.9	1.8	(0.3)	0.6	(5.3)	18.4	1.8
US-Semi	4.3	14.1	14.8	0.8	20.6	1.3	3.0	1.7	(3.5)	(0.4)	(4.2)	16.6	2.3
TW-Semi	15.5	6.7	11.9	(1.9)	20.6	1.9	2.4	0.7	0.0	1.1	(4.4)	16.6	3.7
US-Telecom	6.1	6.2	14.5	(1.1)	21.9	1.6	3.2	1.5	(0.7)	(1.0)	(3.9)	(0.5)	4.7
CH-Telecom	4.0	8.1	14.5	2.4	10.3	(1.5)	1.5	0.3	(1.5)	(0.1)	(0.8)	8.9	2.9
US-Utility	1.8	4.4	16.5	1.2	9.8	(0.3)	1.6	1.2	(0.7)	(0.2)	0.0	2.5	3.7
CH-Utility	19.4	9.8	11.8	(0.3)	14.3	0.8	1.7	0.5	(1.4)	(0.6)	1.9	(1.2)	2.9

자료: Thomson Reuters,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부양 기대 등으로 주요 이머징 동반 상승

- ▶ 상해종합지수는 유동성 확대 전망, 경기부양 기대 등으로 2% 넘게 추가 상승
- ▶ 홍콩 증시는 국유기업 개혁 기대 등으로 4% 이상 추가 상승, 나흘 만에 무려 15% 넘게 급등
- ▶ 자카르타종합지수는 세계은행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 하향 조정, 외국인 순매도 등에 하락
- ▶ VN지수는 주가 메리트 부각, 국영기업 IPO 진행 속도 가속화에 대한 기대 등에 1%대 상승

상해종합지수 2.2% 상승,
금융, 에너지 등
대부분 업종은 상승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가 2.2% 급등한 4,122p로 마감했다. 4,000p선을 상향 돌파한지 불과 하루 만에 4,100p까지 상향 돌파했고 재차 7년 만에 신고치를 경신했다. 거래대금은 7,817억위안으로 전날보다 1,150억위안 가까이 확대됐다. 인민은행이 1분기에 중기 유동성지원창구(MLF)를 통해 시중에 3,700억위안의 유동성을 투입했다는 소식이 호재였다. 3월 수출입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했고 이번주 1분기 실물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 기대감과 유동성렐리가 지속됐다. 최근 상승세가 가팔랐던 증권과 보험 업종에 일부 조정흐름이 나타났고 그 외의 모든 업종들이 일제히 상승했다. 수출입은행 등의 3대 정책성은행기관들의 개혁안이 국무원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은행업종이 3% 상승,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건설은행 주가가 7.1% 급등했다. 우리사주 발행계획을 공시한 초상은행은 상한가로 마감했다. 일부 지역들의 철도 건설공작회의 개최로 철도건설 가속화 기대에 중국남차와 중국북차, 중국중철 등 대표주가 재차 상한가를 기록했다.

홍콩H지수 4.3% 상승,
부동산, 전력 등 대부분
업종 동반 강세

■ 홍콩 시장

홍콩H지수가 4.3% 급등하며 최근 나흘 만에 무려 15.2% 급등했다. 3월 중국의 대외 무역 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A/H 차익거래를 노린 매수자금이 대거 유입됐고 국유기업 개혁관련 테마주들도 급상승세를 보였다. 우리사주 발행기대로 초상은행은 홍콩증시에서 24.8% 급등했고 국유기업 개혁 테마인 국약공고는 11.4% 급등했다. 일대일로 테마주인 건설, 철도, 은행 등도 모두 5% 넘게 상승하며 지수강세를 주도했다. 한편 항공, 전력, 부동산, 자동차 등의 개별 종목들은 하락 마감했다.

자카르타종합지수 이틀째 하
락, 시멘트, 항공 등 관련주
약세

■ 인도네시아 시장

자카르타종합지수는 하락 폭을 0.8%로 확대하며 이틀 연속 약세를 보였다. 세계은행이 인도네시아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외국인 순매도에 나섰고 장중 달러/루피아 환율도 상승하면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부진한 판매실적 발표에 시멘트 업종은 연속 하락했고 차익실현 매물 증가로 항공주도 동반 하락했다.

■ 베트남 시장

VN지수 1.0% 추가 상승,
가스, 유제품, 은행 등
관련주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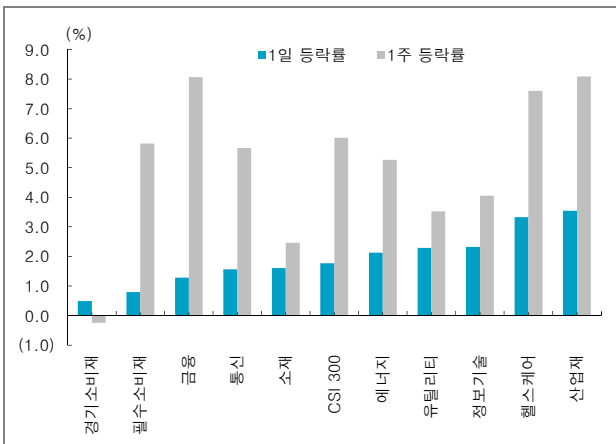
VN지수는 1.0% 추가로 상승했다. 3거래일 연속 강세를 유지하며 560선에 근접했다. 주가 메리트 부족, 국영기업 IPO 진행 속도 가속화에 대한 기대 등이 호재였다. 어닝 시즌 진입으로 올해 1분기 실적이 개선했을 것이라는 전망도 매수심리를 자극했다.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가스, 유제품, 은행 등 관련주가 동반 상승했다.

주요 이머징마켓 뉴스

시장 구분	주요 내용
중국	중국 결산공사, 4월 13일부터 투자자들의 1인 1계좌 규제 전면 취소 중국 국가통계국, 3월 수출 증가율 YoY -14.6% (예상 8.2%, 3월 48.9%) 중국 국가통계국, 3월 수입 증가율 YoY -12.3% (예상 -11.3%, 3월 -20.1%)
인도네시아	세계은행, 인도네시아 2015년 경제성장 전망치 5.6%에서 5.2%로 하향 조정
베트남	세계은행, 베트남 GDP에 대비 외채 비율 2010년 23% → 2014년말 32%로 증가했음
베트남	세계은행, 2014년말 베트남 GDP에 대비 공공부채 비율 61%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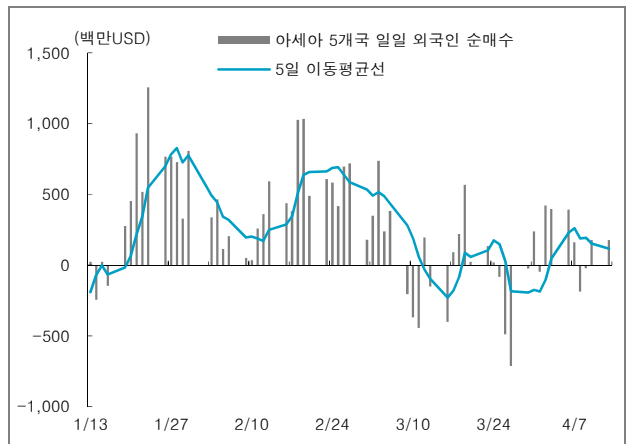
◆ 주요 이머징마켓 차트

[그림 1] 중국 CSI300 업종별 등락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아세아 5개국* 외국인 순매수 규모 추이



주: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5개국의 달러자금 흐름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분	4/13(월)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4,121.71	2.17	6.67	9.97	27.42
홍콩 H	14,590.45	4.31	16.38	18.18	21.74
중국 차스닥	2,577.78	0.98	2.69	10.39	75.15
인도 SENSEX	29,053.86	0.60	1.93	3.92	5.65
인도네시아 JCI	5,447.41	-0.80	-0.60	-1.29	4.22
태국 SET	1,547.83	0.18	1.02	2.78	3.35
베트남 VN	559.54	0.99	3.05	1.53	2.55
MSCI 이머징마켓	1,034.59	0.58	2.86	6.16	8.19

주: 13일 오후 6시 45분 기준

시장 동향과 특징주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연중 최고치 행진을 이어감

- 미국증시는 제너럴 일렉트릭(GE)의 고강도 개혁 작업 소식 등에 힘입어 다우지수가 18,000P선을 다시 회복하는 등 일제히 상승 마감. 2,090P선을 돌파하며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투신을 비롯한 기관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연기금 등의 매수세로 이를 연속 상승 하며 2,100P선에 바짝 다가섬. 코스닥도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연일 연중 최고치 행진을 이어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HDC신라면세점을 설립을 위해 호텔신라와 현대산업이 합작 법인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호텔신라는 상한가를 , 현대산업은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증권사들의 잇따른 목표주가 상향 및 성장 전망에 아모레퍼시픽이 장중 380만선을 돌파하며 신고가 를 기록.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증시 활황 및 실적 개선 기대감에 증권주들이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으며, 정책효과와 실적 개선 기대감에 건설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짐. 또한, 석유화학 제품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에 석유화학주 들이 강세를 보였으며, 바이오시밀러의 상업적인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셀트리온을 비롯해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강 세를 보임. 반면, 메탈케이스 채택 확대 수혜주로 지목되며 상장 전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던 유지인트는 신규 상장 첫날 차익실현 매물 로 하한가를 기록했으며, 6개월 간 공공기관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됐다는 소식에 피에스텍이 9% 가까운 급락세를 보임

종목/이슈	내 용
호텔신라(008770) ▶113,000(상한가) 현대산업(012630) ▶64,000(+7.93%)	합작 면세점 추진 소식에 급등세 - 지난 7일 현대산업과 호텔신라 양사가 HDC신라면세점을 설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며 급등세 - 양사는 50대 50 비율로 공동출자를 통해 합작면세점을 신규 설립하고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안에 4개 층 규모의 시내면세점을 유지할 계획. 이를 통해 오는 7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내면세사업자 선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으로 예상
석유화학주	석유화학 제품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에 강세 - 유가 및 원료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 지역의 석유화학 설비 정기보수로 공급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해 석유화학 제품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에 강세 - 금호석유(004830, +7.19%), 카프로(006380, +6.22%), LG화학(051910, +6.05%), 대한유화(006650, +5.84%), 현대EP(089470, +5.47%), 동부CNI(012030, +4.52%) 등 강세
바이오 관련주	바이오시밀러 상업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에 강세 - 미국 유타 주에서 약사가 의사 처방 바이오 의약품에 바이오시밀러로 대체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최근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의 상업적인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에 강세 - 셀트리온(068270, 상한가), 셀트리온제약(068760, +12.93%), 알테오젠(196170, +12.78%), 코미팜(041960, +11.66%), 대성미생물(036480, +11.12%), 서린바이오(038070, +8.74%) 등 강세

52주 신고가

종목	내 용
원익큐브(014190) ▶4,140(상한가)	- 자회사 씨엠에스랩이 운영중인 화장품 브랜드 셀퓨전씨가 면세점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소식에 신고가 경신
삼호개발(010960) ▶4,180(상한가)	- 대림산업과 210억원 규모의 밀양울산고속7공구 중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를 수주했다는 소식에 신고가 경신. 이는 지난해 매출액 대비 10% 가까운 규모임
아모레퍼시픽(090430) ▶3,700,000(+4.14%)	- 글로벌 화장품업체 중 독보적인 성장성을 보유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확대가 예상된다는 평가에 신고가 경신. 아울러, 유통주식수를 늘리기 위한 액면분할 효과도 긍정적으로 작용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주요 종목들로 추천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유망종목: 영원무역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영원무역 (111770)	57,800 (+8.9)	53,100 (3/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류 OEM부문은 원화 약세, 방글라데시 인건비 상승 둔화 등으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지역은 신규 바이어 위주로 고성장 예상 - 연간 기준 두 자리수대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원가 경쟁력과 높은 가격 협상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구조 지속 전망
솔루에타 (154040)	11,100 (-8.6)	12,150 (3/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폐 테이프 시장의 높은 성장성, 다변화된 거래처와 수직 계열화, 지속적인 신제품 출시 등을 기반으로 안정적 성장세 지속 예상 - 전자파 차폐소재 수요의 견고한 성장세와 판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객사의 신제품 호조에 따른 실적 회복세를 고려할 때 여타 IT부품주들 대비 차별화된 성장성과 수익성 재부각 가능성 상존
영풍정밀 (036560)	11,050 (+8.3)	10,200 (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밸브의 부진으로 2014년 매출액은 감소했지만 저가 수주가 마무리됨에 따라 영업이익률 두 자리수대 회복 - 제품믹스 개선, 매출 다변화, 증설효과 등을 감안할 때 2015년 실적 개선 모멘텀에 대한 기대 유효 -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보유 중인 영풍과 고려아연의 지분가치가 시가총액의 150%(PBR 0.5배)로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 매력 내재
진성티이씨 (036890)	6,640 (+17.1)	5,670 (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최대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라향 매출은 장기공급계약 물량을 바탕으로 올해도 안정적으로 증가할 전망. 글로벌 메이저 굴삭기 업체들의 부품 아웃소싱 확대 추세 속에 Bobcat, Komatsu 등으로의 공급 물량 확대 예상. 해외 고객사 비중이 늘어나는 점은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 요인 - 중국 인민은행의 기준을 인하 결정, ECB의 양적완화 등을 감안할 때 글로벌 경기 재안정화 기대 유효
오로라 (039830)	12,300 (-10.5)	13,750 (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캐릭터 완구 1위 업체로 캐릭터 라이선싱 및 머천다이징으로 사업 확장 중 - 2015년 1월, '유후와 친구들' 시즌 3 방영 시작. 유럽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올해 전 세계 캐릭터 완구시장의 40%를 차지하는 미국 지역에 마케팅 역량을 강화할 계획 - 생산능력 제고와 함께 경영 효율성 강화로 영업이익률 10%대 안착 예상
바이오랜드 (052260)	26,950 (+10.0)	24,500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그룹의 중국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한 적극적인 시장 공략과 중국 해문공장 가동 본격화에 따른 성장성 재부각 가능성 - 전방산업의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다각화된 사업구조와 다변화된 거래처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예상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KCC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5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KCC (002380)	547,000 (-2.8)	563,000 (3/31)	3,528	329	260	26,571	2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자재 시장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재료 매입액 감소에 따른 수익성 개선 예상 - 2014년 기말 배당금을 6년만에 주당 8천원으로 1천원 상향하며 주주 가치 제고에 노력 - 안정된 사업 포트폴리오와 풍부한 자산가치를 감안할 때 재평가 가능성 상존
현대모비스 (012330)	231,000 (-6.9)	248,000 (2/2)	38,488	3,297	4,058	42,468	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기아차의 친환경차 라인업 강화와 준중형모델들의 ADAS(운전보조장치) 채택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성장세 지속 예상 - 현대/기아차의 누적 판매 대수 확대에 따른 AS부품 판매의 구조적 증가와 이익 방어력을 주목할 필요 - 견고한 펀더멘털 및 글로벌 peer 대비 상대적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엔씨소프트 (036570)	187,500 (+3.9)	180,500 (1/2)	861	266	220	11,035	1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인 주주 가치 제고에 나선 가운데 기존 게임의 ARPU 상승과 길드워2 확장팩 출시 등으로 영업이익 개선세 지속 예상 - 리니지1의 수익성 높은 신규 아이템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리니지, 아이온, 블레이드앤소울의 추가 구성상품 선택을 통한 ARPU 상승 예상 - 2015년에는 블레이드앤소울 TCG, 패션스트리트, 팡야 등 모바일 게임 다수 출시 예정
LG하우시스 (108670)	169,500 (+6.3)	159,500 (1/2)	3,137	163	123	12,279	1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방산업의 회복으로 PVC 창호, 바닥재 등 건자재 건자재 매출 성장이 예상되며, 자동차, 가전관련 소재도 거래처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성장 가능할 전망 - PVC, 가소제, MMA 등 화학제품 가격 하락으로 원재료 감소에 따른 수익성 개선 예상 - 미국에 자동차 원단 공장 증설, B2C 건자재 확대(온라인 '지인물' 오픈 등) 등 다각적 투자를 통한 장기 성장동력 강화
LG생활건강 (051900)	839,000 (+35.8)	618,000 (1/2)	5,083	600	427	25,640	3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에도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면세 매출호조와 방문판매 매출증가로 화장품 부문의 실적은 개선세 지속 예상 - 화장품 면세채널과 중국사업 정상화, 생활용품과 음료부문의 경쟁완화 등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주목할 필요
SK하이닉스 (000660)	44,200 (-7.4)	47,750 (1/2)	19,340	6,100	5,180	7,120	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버, 모바일, 그래픽 등 D램 수요 확대로 D램 가격 안정세 지속 - 애플 및 OEM 수요, 스마트폰 신제품 수요 등을 감안할 때 2015년에도 안정적인 실적 흐름 지속 예상 - 영업활동을 통한 순현금 창출능력을 감안할 때 자사주 취득 및 주주배당을 통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 유효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LG생활건강, 엔씨소프트,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KCC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음식료 · 담배: 14/15년 곡물 재고율 소폭 등락 → 곡물가격 보합권 등락 전망

■ 2014/15년 세계 재고율 전망치: 소맥은 하락, 옥수수는 상승, 대두는 동일

미국 농무성(USDA)이 10일(현지 시간 9일)에 4월 세계곡물수급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4/15년 주요 곡물의 재고율 전망치는 소맥은 전월대비 소폭 하락했고, 옥수수는 상승, 대두는 동일했다. 14/15년 재고율은 소맥 27.6%(3월 전망치 27.7%), 옥수수 19.3%(19.0%), 대두 31.0%(31.0%)를 기록했다. 13/14년 재고율은 소맥 26.4%(3월 전망치 26.6%), 옥수수 17.9%(18.1%), 대두 24.3%(24.3%)를 기록했다.

■ 작황 개선 지속, 뚜렷한 소비 증가도 없어

14/15년 소맥: 이번에 전망된 14/15년 기말재고율(기말재고/소비)은 전월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세계 공급 전망은 기초재고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EU와 파키스탄의 생산 전망이 0.8백만톤, 0.5백만톤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0.8백만톤 늘었다. 세계 소비량은 전월대비 1.3백만톤 증가했는데 이번 달에 아프리카 6개국(베냉, 말라위, 말리, 나미비아, 르완다, 우간다)이 통계에 신규 추가된 것에 기인했다.

14/15년 옥수수: 기말재고율 전망이 전월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생산 전망은 상향되는데 반해 소비 전망은 하향되어 기말재고량 전망이 전월대비 3.2백만톤 상승했다. 세르비아에서는 강수량 증가로 추수가 지연되었던 물량이 추가되며 생산이 전월대비 0.9백만톤 늘었다. 멕시코에서는 과중 면적 증가 및 겨울 강우로 0.8백만톤, 아르헨티나에서도 작황개선으로 0.5백만톤 생산 전망이 상향됐다. 세계 소비는 미국에서 식용, 사료용 소비 위축으로 전월대비 2.2백만톤 감소했다.

14/15년 대두: 기말재고율이 전월과 동일했다. 세계 생산 전망은 전월대비 0.4백만톤 증가하며 역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아르헨티나의 생산 전망이 높아진 수율과 우호적 작황을 반영해 전월대비 1.0백만톤 증가한 것이 주효했다. 반면 인도에서는 평균 이하인 수율과 평소보다 짧아진 계절풍으로 인해 생산 전망이 전월대비 0.7백만톤 감소했다. 전체 소비 전망은 미국에서 과중용, 식용 증가로 전월대비 0.4백만톤 증가한 것 외에 별다른 뉴스는 없었다.

■ 곡물가격 보합권에서 변동 예상

곡물가격은 지난 1개월간 예상대로 보합 수준에 머물렀다. 소맥 +5.0%, 옥수수 -1.4%, 대두 -3.5%, 원당 -3.5%로 움직였다. 앞으로는 주요 곡물의 북반구 과중기에 돌입하므로 기상 변수로 인한 곡물가격 등락이 더 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까지 큰 기상 이변 이슈가 없어 곡물가격이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NOAA는 여름까지 태평양 연안에서의 엘니뇨가 지속될 가능성을 50~60%로 보고 있으나 그 강도는 약할 전망이다. 투기세력의 매수세도 아직까지는 확대되지 않았다. 우리는 원/달러 환율과 곡물달러가격이라는 외생변수의 변화가 당분간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며 업종에 대해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한다. 현재 우리의 Top picks은 롯데칠성, KT&G, 농심, 매일 유업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5년 4월 1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건자재: 1Q15 preview: 무난한 출발, 좋은 방향성

■ 1~2분기 일시적으로 불리한 외부 환경 속에서도 양호한 실적 전망

주요 건자재 업체(KCC, LG하우시스, 한샘, 벽산)의 합산 매출은 전년대비 5%, 영업이익은 4%, 순이익은 8% 증가, 대체로 높은 기대에 부합할 전망이다. 입주량 둔화와 비 건자재 부문의 변동성 등 전년의 높은 base 부담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이어간다는 점에 주목한다. 2014년 상반기는 역대 최대의 입주량 영향으로 건자재 B2B 매출이 가장 컸던 때이며 이는 시장의 우려로 작용하고 있다. 입주량은 2014년 상고하저, 2015년은 상저하고의 패턴을 보여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대부분 양호한 실적을 전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KCC/벽산: 값싼 서비스와 결별할 때. 단열재는 두꺼워지고 비싸진다

KCC의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6% 성장한 710억원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이다(현재 컨센서스 영업이익은 760억원이나, 표본평균과 약 30%의 괴리를 보이는 outlier 1~2개를 제외할 경우 컨센서스는 720~730억원에 형성). 선박용 도료의 부진을 건축/공업용 도료가 상쇄, 생산량은 전년과 유사할 전망이며 원가하락 효과를 기대한다. 벽산(007210/NR) 역시 base 부담에도 영업이익 9% 성장을 예상한다. 자회사 벽산페인트는 이익을 거의 내지 못하다 작년 하반기부터 원재료 하락으로 영업이익률은 무려 6%를 시현했다.

주지하듯 올해 상반기에는 한샘을 제외한 모든 업체가 전년 상반기 사상 최대였던 입주량 부담이 있다. 그럼에도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고기능 건자재 확산에 따른 수익성 개선 때문이다. 무기질 단열재와 '아이소핑크'와 같은 난연 단열재는 초고층 건물과 산업시설에 제한적으로 사용됐으나 최근 연이은 사고로 적용 면적이 확대되고 있다. 그간 무기질 단열재가 사용되지 않았던 주택에도 벽 사이 등에 침투율이 늘고 있는 추세다. 사용되는 단열재는 두꺼워지고 고밀도로 변하고 있다. 안전에 대한 욕구와 규제는 투입량이 일시 둔화되는 사이클에서도 매출을 방어하고 수익성을 제고하는 환경 요인이다.

■ LG하우시스: 전분기 높은 base 감안해 보수적 추정, 그러나 우상향 추세 예상

영업이익 305억원(-12%YoY)를 예상한다. 건자재 출하량이나 소재사업은 원활할 것으로 예상하나 비용의 분기 집중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추정했다. 최근 3년의 분기 패턴을 리뷰해 보면, 4분기마다 영업이익률은 1%대에 머물렀다[그림2]. 4분기는 통상 다음 해를 준비하며 마케팅 등 비용 투자를 했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2014년은 3분기 통상임금에 따른 실적 부진 후, 4분기 예외적으로 4%대의 영업이익률을 시현했다. 즉, 전 분기 서프라이즈에 따른 기저효과라 분기별 등락을 거듭해도 연간 우상향 추세는 확고하다.

■ 좋은 기업을 싸게 살 기회, Top pick은 KCC

일시적인 B2B 매출 둔화를 우려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특정 분기 입주량 솔림이 기업 가치에 큰 변수는 아닐 것이다. 방향성이 명확함에도 분기 실적에 과민한데, 타 섹터대비 corporate access가 쉽지 않다는 단점도 개입될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3년째 분양 증가로 최소 2017년까지 B2B 매출은 상승세다. 오히려 지금처럼 일시적인 물량 둔화의 시기가 좋은 업체를 싸게 살 때다. 아이템 차별화로 ASP 압력을 방어하고, 폭넓은 제품으로 리모델링 시장의 과점화에 대비할 수 있는 B2C 기반을 갖춘 업체에 접근을 권유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를 충족하는 대형사가 가장 싸진 상황이다. Top pick은 KCC를 유지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5년 4월 1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금호타이어(073240)

매수(유지)
목표가: 12,000원(유지)
종가(4/10): 9,320원

미국 NDR 후기

■ 전반적으로 부진한 타이어 업황에도 불구하고, 턴어라운드 스토리에 높은 관심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금호타이어와 함께 미국 투자가들을 만났다. 원재료 가격 하락과 경쟁심화로 타이어 업황이 부진한 상황이나 투자가들은 금호타이어의 턴어라운드 스토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재의 낮은 가동률은 업황 반등 시 높은 성장 잠재력으로 전환될 수 있고, 재무구조 개선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투자가들은 현재 밸류에이션 수준이 매력적임에 동의했으나(2015F PER 8.3배), 향후 예상되는 채권단 지분매각에 따른 단기 불확실성을 우려 요인으로 꼽았다. 한편 요코하마와의 제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손익에 미치는 영향 및 추가 협력방안에 대해 질문이 집중됐다.

■ OE 중심 매출구조로 중국 내수 시장 경쟁심화 타격 최소화

금호타이어는 중국 내수 시장에서 OE 중심 매출구조를 통해 경쟁심화에 따른 타격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중국 내수 시장은 로컬 브랜드가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미국의 중국산 타이어 관세 부과로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특히 신규 진입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안정적인 신차용 타이어(OE)보다 교체용 타이어(RE) 시장에서 두드러질 것이다. 다만 금호타이어는 중국 내수에서 OE 비중이 80%에 달하고 이미 RE 마진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가 제한적일 전망이다.

■ 요코하마와의 전략적 제휴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

2014년 2월에 시작된 요코하마 타이어와의 전략적 제휴의 성과도 올해부터 나올 예정이다. 투자가들은 최근 중국 캄차이나의 피렐리 타이어 인수 사례와 같이(3/25 보고서 ‘피렐리가 동쪽으로 가는 까닭은?’ 참조) 타이어 업계의 합종연횡 움직임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요코하마와의 제휴가 구체적으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 될 경우 새로운 호재가 될 전망이다.

■ 여전히 진행 중인 턴어라운드, 단기적으로 금호산업 매각을 지켜보자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금호산업 매각이 금호타이어에게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판단한다. 금호산업의 채권단 지분 매각이 상반기 내 순조롭게 마무리 된다면, 동일한 채권단이 진행하는 금호타이어 지분 매각도 하반기 내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채권단 지분의 안정적인 처리가 핵심관건이다. 턴어라운드 스토리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분매각에 따른 오버행 우려까지 해소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목표주가 12,000원을 유지한다(12MF EPS에 목표 PER 10.5배 적용).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3A	3,699	346	95	695	(32.6)	532	16.5	7.5	1.7	10.4	-
2014A	3,438	358	130	860	23.7	545	11.2	6.6	1.3	11.6	-
2015F	3,436	373	178	1,126	30.9	571	8.3	6.3	1.1	13.7	-
2016F	3,536	412	207	1,311	16.4	626	7.1	5.7	0.9	13.9	-
2017F	3,700	456	242	1,534	17.0	679	6.1	5.1	0.8	14.2	-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5년 4월 1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송승연(seungyeon.song@truefriend.com) ☎ 02-3276-6273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4/6(월)	4/7(화)	4/8(수)	4/9(목)	4/10(금)	4/13(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46.43	2,047.03	2,059.26	2,058.87	2,087.76	2,098.92	
	등락폭	1.01	0.60	12.23	-0.39	28.89	11.16	
	등락종목	상승(상한)	473(7)	405(5)	455(10)	455(6)	509(4)	450(13)
		하락(하한)	339(0)	398(0)	361(1)	359(0)	313(0)	363(0)
	ADR	117.08	121.30	125.02	124.25	124.31	126.12	
	이격도	10 일	100.58	100.58	101.10	100.90	101.97	102.18
		20 일	101.24	101.12	101.52	101.28	102.45	102.71
	투자심리	70	70	70	70	80	80	
	거래량 (백만 주)	460	436	553	530	658	550	
	거래대금 (십억 원)	4,769	4,861	6,518	6,046	6,415	6,950	
코스닥	코스닥지수	662.15	666.83	668.03	676.96	682.02	689.39	
	등락폭	4.11	4.68	1.20	8.93	5.06	7.37	
	등락종목	상승(상한)	473(15)	405(17)	455(21)	455(20)	509(26)	470(23)
		하락(하한)	339(0)	398(0)	361(0)	359(0)	313(0)	515(2)
	ADR	103.14	107.70	108.99	107.55	106.07	106.17	
	이격도	10 일	101.97	102.29	102.21	103.04	103.15	103.59
		20 일	103.38	103.74	103.54	104.53	104.92	105.62
	투자심리	70	70	70	70	80	80	
	거래량 (백만 주)	524	550	561	595	602	704	
	거래대금 (십억 원)	3,202	3,719	3,773	3,773	4,220	4,587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4,120.2	1,614.0	1,201.2	275.4	144.9	268.7	118.9	39.2	354.097	56.8
	매도	4,097.9	1,333.3	1,489.7	305.3	174.4	442.5	113.3	26.7	427.6	71.3
	순매수	22.3	280.7	-288.5	-29.9	-29.5	-173.8	5.7	12.5	-73.5	-14.5
	4월 누계	9.0	790.3	-664.4	-148.2	-10.3	-939.5	93.5	38.2	302.0	-134.8
	15년 누계	-1,394.8	3,937.3	-3,650.8	-2,460.3	62.9	-3,509.6	-279.2	154.1	2,381.2	1,108.3
코스닥	매수	4,064.3	322.8	203.0	59.9	24.1	59.2	25.2	4.8	29.9	31.8
	매도	4,063.5	267.9	248.1	72.2	24.7	52.9	21.8	8.1	68.4	42.4
	순매수	0.8	54.9	-45.1	-12.4	-0.7	6.3	3.4	-3.3	-38.4	-10.7
	4월 누계	143.1	92.9	-175.9	-63.8	21.6	-89.8	-19.3	0.7	-25.4	-60.0
	15년 누계	664.2	-119.9	50.1	-143.3	179.9	-88.9	-102.0	23.7	180.8	-594.4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증권	6,986	전기,전자	-51,248
건설업	2,042	서비스업	-32,281
유통업	666	제조업	-14,661
호텔신라	16,729	삼성전자	-29,874
KODEX 단기채권	8,864	TIGER 200	-12,222
LG화학	6,439	삼성물산	-8,570
대림산업	5,382	제일모직	-8,247
SK이노베이션	3,374	LG전자	-8,123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38,811	통신업	-19,313
전기,전자	22,535	운수장비	-8,836
서비스업	12,533	유통업	-6,254
삼성전자	23,019	KODEX 200	-24,544
금호석유	13,052	현대모비스	-10,047
LG화학	10,390	SK텔레콤	-8,342
KCC	8,893	KT	-7,763
한화	5,656	호텔신라	-6,459

(체결기준: 백만원)

은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7,742	화학	-1,627
운수장비	2,782	증권	-1,376
유통업	2,600	보험	-1,295
삼성전자	3,923	KODEX 레버리지	-7,099
호텔신라	2,255	KODEX 200	-2,638
현대글로벌비스	2,193	롯데케미칼	-1,921
녹십자	1,990	GS건설	-1,427
현대차	1,622	LG화학	-922

보			
순 매 수		순 매 도	
건설업	10,894	전기,전자	-8,389
화학	7,859	보험	-6,784
종이, 목재	1,139	통신업	-6,164
대림산업	5,581	KODEX 200	-9,746
SK이노베이션	4,860	삼성전자	-7,479
LG디스플레이	4,551	현대모비스	-5,614
호텔신라	4,491	TIGER 200	-3,908
롯데케미칼	3,368	LG	-3,861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39,716	전기,전자	-85,236
건설업	27,791	서비스업	-50,526
증권	11,959	통신업	-39,283
KODEX 레버리지	42,228	삼성전자	-44,555
호텔신라	31,599	현대모비스	-29,749
현대중공업	20,858	KODEX 200	-28,079
LG화학	20,239	KODEX 인버스	-18,199
대림산업	17,800	SK C&C	-15,602
SK이노베이션	14,288	KT	-15,424
대우조선해양	9,319	SK텔레콤	-14,567
삼성증권	9,152	LG전자	-14,294
금호석유	8,918	LG	-13,466
KCC	7,583	삼성에스디에스	-12,174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63,644	증권	-25,057
서비스업	46,262	의약품	-4,057
유통업	36,514	종이, 목재	-1,898
KODEX 200	30,662	기아차	-14,251
삼성전자	25,013	키움증권	-13,215
호텔신라	23,891	현대산업	-11,780
SK하이닉스	20,692	아모레퍼시픽	-8,631
LG화학	17,025	대우증권	-8,198
NAVER	15,913	현대차	-5,709
KB금융	14,555	한국금융지주	-5,595
대우조선해양	13,825	금호석유	-5,048
삼성화재	13,739	아모레퍼시픽우	-5,018
현대차2우B	11,333	LG생활건강	-4,398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계약	7,177	반도체 -1,982
금융	1,193	IT부품 -1,715
기계,장비	726	방송서비스 -925
셀트리온	3,369	동서 -1,832
메디톡스	1,619	심텍 -1,335
한국토지신탁	1,193	게임빌 -888
하이셀	1,102	실리콘웍스 -866
테라젠이텍스	914	에스에프에이 -756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전문기술	1,935	계약 -12,555
화학	562	소프트웨어 -2,278
금융	210	연구,개발 -1,813
CJ E&M	2,730	셀트리온 -13,895
이오테크닉스	773	골프존유원홀딩스 -2,940
휴온스	769	동서 -1,530
제이브이엠	645	코스온 -1,480
SBS콘텐츠허브	521	마크로젠 -1,467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기계,장비	861	계약 -397
방송서비스	527	인터넷 -364
IT부품	305	도매 -274
동아엘텍	530	KTH -433
CJ오쇼핑	438	다우데이터 -249
제우스	203	셀트리온 -232
아이컴포넌트	156	동국제약 -103
네오팜	148	CJ E&M -102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오락,문화	2,411	디지털컨텐츠 -1,829
반도체	2,080	소매 -1,194
의료,정밀기기	1,120	도매 -1,026
파라다이스	2,465	컴투스 -2,059
셀트리온	1,864	서부T&D -1,500
에스앤에스텍	696	휴온스 -1,307
SBS콘텐츠허브	676	다음카카오 -961
바이넥스	621	CJ프레시웨이 -796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계약	18,096	IT부품 -7,014
오락,문화	2,980	도매 -7,007
전문기술	2,673	디지털컨텐츠 -6,770
셀트리온	11,422	코스온 -5,890
파라다이스	3,374	동서 -5,860
메디톡스	2,783	컴투스 -4,185
바이넥스	2,597	다음카카오 -3,973
SBS콘텐츠허브	2,467	골프존유원홀딩스 -3,306
지스마트글로벌	2,097	게임빌 -3,046
한국토지신탁	1,669	삼성엘엔에스 -2,370
하이셀	1,559	심텍 -2,235
유진기업	1,493	모두투어 -2,169
CJ E&M	1,471	마크로젠 -1,799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계약	70,348	소프트웨어 -7,365
IT부품	7,005	오락,문화 -6,774
디지털컨텐츠	4,542	운송장비,부품 -3,644
셀트리온	67,182	파라다이스 -6,824
삼성엘엔에스	3,321	KG이니시스 -5,248
보성파워텍	2,035	원익IPS -3,655
동서	2,016	성우하이텍 -3,461
웹젠	1,992	다음카카오 -3,029
컴투스	1,710	인터파크 -2,137
솔브레인	1,704	토비스 -1,620
에스에프에이	1,685	유진기업 -1,419
셀트리온제약	1,664	실리콘웍스 -1,398
하이셀	1,664	조이시티 -1,349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일성신약	40 일	삼성정밀화학	27 일
롯데케미칼	18 일	삼성카드	23 일
S-Oil	13 일	경방	16 일
한진중공업	13 일	NAVER	12 일
미래에셋증권	10 일	한일시멘트	11 일
TIGER LG그룹+	10 일	국도화학	11 일
대한항공	9 일	디와이	10 일
SK이노베이션	9 일	현대제철	9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케이디씨	6 일	심택	11 일
유진기업	5 일	다산네트웍스	8 일
파라다이스	4 일	오스템임플란트	8 일
셀트리온	3 일	신화인터텍	8 일
에이블씨엔씨	3 일	동국산업	7 일
인터파크	2 일	포스코엠텍	7 일
서울반도체	2 일	성광벤드	7 일
오스템임플란트	2 일	OCI머티리얼즈	6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KODEX 레버리지	274,618	삼성전자	79,359
SK이노베이션	119,599	NAVER	72,093
현대중공업	96,520	LG화학	67,591
LG화학	76,541	현대제철	58,359
롯데케미칼	60,294	SK텔레콤	56,608
S-Oil	42,560	삼성전자우	53,290
현대미포조선	39,821	현대중공업	48,032
대우증권	39,139	삼성화재	47,102

KOSDAQ			
기	관	외	국 인
파라다이스	10,598	셀트리온	62,354
인트론바이오	7,994	삼성엘앤에스	22,285
KG이니시스	7,932	게임빌	7,853
유진기업	7,831	이라이콤	5,364
바이넥스	6,064	OCI머티리얼즈	4,608
리후쿠첸	4,790	웹젠	3,740
셀트리온	4,659	오스템임플란트	3,352
테라젠이텍스	4,498	GS홈쇼핑	3,063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KOSPI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유통업		10,308		36,514		46,821	
화학		39,716		2,847		42,563	
건설업		27,791		4,632		32,423	
호텔신라		31,599		23,891		55,490	
KODEX 레버리지		42,228		1,234		43,462	
LG화학		20,239		17,025		37,264	
현대중공업		20,858		7,887		28,745	
대림산업		17,800		5,641		23,440	
대우조선해양		9,319		13,825		23,144	
SK이노베이션		14,288		322		14,610	
SK케미칼		6,101		5,550		11,652	
삼성엔지니어링		3,550		7,931		11,481	
삼성증권		9,152		2,092		11,244	

종	KOSDAQ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제약			18,096		70,348	88,443	
기계, 장비			928		920	1,847	
일반전기전자			462		1,295	1,756	
셀트리온			11,422		67,182	78,604	
바이넥스			2,597		1,503	4,100	
메디톡스			2,783		496	3,279	
하이셀			1,559		1,664	3,223	
CJ E&M			1,471		1,484	2,956	
SBS콘텐츠허브			2,467		88	2,555	
셀트리온제약			711		1,664	2,375	
보성파워텍			6		2,035	2,040	
인트론바이오			878		1,067	1,945	
삼목에스폼			15		1,620	1,635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LG	36 일	넥센타이어	12 일
KPX케미칼	28 일	미래에셋증권	11 일
모토닉	26 일	종근당홀딩스	8 일
한라비스테온공조	26 일	대한유화	7 일
TREX 펀더멘탈 200	19 일	하나금융지주	7 일
SK네트웍스	18 일	LF	7 일
현대모비스	18 일	기아차	6 일
TIGER 증권	18 일	세종공업	6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에이테크솔루션	96 일	코미팜	7 일
GS홈쇼핑	11 일	성우하이텍	6 일
신화인터텍	11 일	시그네텍스	6 일
KCC건설	9 일	파라다이스	6 일
심텍	9 일	인터파크	5 일
크루셜텍	8 일	다음카카오	5 일
태광	7 일	엘앤에프	5 일
태웅	7 일	포스코 ICT	4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KODEX 인버스	-153,718	SK하이닉스	-52,325
현대모비스	-94,413	기아차	-45,269
SK텔레콤	-76,266	POSCO	-32,803
SK하이닉스	-67,300	하나금융지주	-32,383
제일모직	-53,398	신한지주	-28,029
한국전력	-52,774	한미약품	-21,338
KT	-49,741	키움증권	-21,119
삼성물산	-45,792	LG생활건강	-18,790

KOSDAQ			
기	관	외	국 인
삼성엘앤에스	-19,912	파라다이스	-29,560
이오테크닉스	-16,377	성우하이텍	-16,122
다음카카오	-14,220	다음카카오	-15,553
에스엠	-10,445	KG이니시스	-6,419
KH바텍	-10,324	KH바텍	-6,150
동서	-8,641	원익IPS	-5,703
코스온	-8,629	유진기업	-5,187
게임빌	-7,049	KG모빌리언스	-4,212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음식료품		-11,005	-332 -11,336
의약품		-3,691	-4,057 -7,748
건설업		27,791	4,632 32,423
현대모비스		-29,749	-2,854 -32,603
KODEX 인버스		-18,199	-1,895 -20,095
현대차		-9,595	-5,709 -15,304
아모레퍼시픽		-5,906	-8,631 -14,537
삼성에스디에스		-12,174	-1,463 -13,637
현대증권		-6,550	-1,574 -8,123
LG생활건강		-2,068	-4,398 -6,466
아모레G		-3,543	-2,429 -5,972
LG디스플레이		-1,590	-4,311 -5,901
아모레퍼시픽우		-434	-5,018 -5,453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소프트웨어		-4,655	-7,365 -12,020
도매		-7,007	-78 -7,086
인터넷		-4,248	-2,473 -6,721
다음카카오		-3,973	-3,029 -7,002
KG이니시스		-704	-5,248 -5,952
성우하이텍		-663	-3,461 -4,124
게임빌		-3,046	-582 -3,628
실리콘웍스		-1,067	-1,398 -2,465
토비스		-440	-1,620 -2,060
SK브로드밴드		-1,555	-142 -1,697
조이시티		-188	-1,349 -1,536
CJ오쇼핑		-655	-690 -1,345
서부T&D		-1,020	-123 -1,143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LG전자	222	13,062	
POSCO	37	9,391	
삼성전자	5	7,986	
삼성화재	25	6,521	
LG화학	24	6,251	
SK이노베이션	48	5,368	
KT&G	54	5,026	
삼성전기	65	4,981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158	12,254	
삼성엘앤에스	29	2,854	
이오테크닉스	15	1,708	
컴투스	9	1,676	
원익IPS	113	1,277	
유진기업	219	1,274	
대화제약	76	1,146	
파라다이스	44	1,052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4,707	7,012,888
현대중공업	10,433	1,471,066
POSCO	4,748	1,201,231
SK하이닉스	22,072	962,337
삼성에스디에스	3,486	906,266
현대차	5,121	857,806
아모레퍼시픽	233	827,742
대우조선해양	41,508	782,429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0,860	1,577,039
다음카카오	6,656	718,898
CJ E&M	411	551,342
파라다이스	13,779	323,818
컴투스	1,656	312,473
위메이드	1,677	246,144
서울반도체	7,507	146,396
에스엠	4,030	139,021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금융업	7,087	서비스업	-2,457
증권	6,500	기계	-1,803
철강및금속	1,474	화학	-1,448
BS금융지주	6,327	두산인프라코어	-1,781
SK증권	3,982	제일모직	-1,524
KODEX 200	2,289	LG디스플레이	-1,210
현대제철	1,965	대우건설	-1,063
유안타증권	1,233	SH에너지화학	-857
한진해운	848	대한항공	-677
메리츠화재	671	경남기업	-655
다우기술	669	현대하이스코	-581
종근당홀딩스	613	제일기획	-564
페이퍼코리아	603	롯데케미칼	-544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순 증		순 감	
오락,문화	2,308	통신서비스	-886
IT부품	1,072	전문기술	-771
제약	630	정보기기	-543
파라다이스	2,323	SK브로드밴드	-931
셀트리온	791	인터파크	-807
한진피앤씨	440	코리아나	-613
다음카카오	383	바이오스마트	-435
HB테크놀러지	351	시그네틱스	-289
KH바텍	295	서울반도체	-252
엔알디	240	JW중외신약	-162
NICE평가정보	238	신원종합개발	-160
KT뮤직	211	심텍	-159
역사이엔씨	210	블루콤	-143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4/7(화)	4/8(수)	4/9(목)	4/10(금)	4/13(월)
외국인	3,937.3	790.3	857.6	44.0	91.7	153.3	287.9	280.7
기관계	-3,650.8	-664.4	-492.2	-57.0	60.0	-228.7	22.0	-288.5
(투신)	-3,509.6	-939.5	-672.6	-151.8	-64.0	-150.3	-132.7	-173.8
(연기금)	2,887.5	393.4	143.0	103.5	36.4	-66.6	30.8	39.0
(은행)	154.1	38.2	31.1	12.1	-1.5	4.2	3.9	12.5
(보험)	62.9	-10.3	43.8	9.7	19.8	-12.2	56.0	-29.5
개인	-1,394.8	9.0	-202.8	62.7	-136.8	153.4	-304.4	22.3
기타	1,108.3	-134.8	-162.6	-49.7	-14.9	-77.9	-5.6	-14.5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2	2013	2014	4/6(월)	4/7(화)	4/8(수)	4/9(목)	4/10(금)
KOSPI	1,997.1	2,011.3	1,915.6	2,046.4	2,047.0	2,059.3	2,058.9	2,087.8
고객예탁금	18,014.3	14,211.8	15,842.5	18,723.8	18,284.2	18,596.0	19,094.0	19,213.9
(증감액)	334.1	-3,802.5	1,630.7	-549.5	-439.6	311.8	498.0	119.9
(회전율)	26.7	29.9	34.0	42.6	46.9	55.3	51.4	55.3
실질예탁금증감	-13,998.7	-10,125.7	-2,121.1	-467.7	-589.3	416.9	574.6	7.1
신용잔고(KOSPI)	2,202.9	2,289.7	2,533.3	3,102.5	3,113.3	3,135.3	3,146.4	3,173.6
신용잔고(KOSDAQ)	1,709.5	1,893.1	2,537.4	3,546.6	3,561.7	3,593.7	3,620.5	3,642.1
미수금	1,241.0	929.0	1,176.0	184.4	152.8	149.2	154.3	166.1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4/6(월)	4/7(화)	4/8(수)	4/9(목)	4/10(금)
전체 주식형	78,426	-2,100	-647	-98	-112	-102	-187	-28
(ex. ETF)		-1,852	-536	-77	-119	-41	-142	-14
국내 주식형	61,783	-2,641	-880	-129	-143	-133	-227	-76
(ex. ETF)		-2,409	-769	-107	-150	-71	-181	-62
해외 주식형	16,644	541	233	31	31	30	39	48
(ex. ETF)		556	233	31	31	30	39	48
주식 혼합형	9,848	-717	-82	-19	-26	-19	-11	-29
채권 혼합형	25,626	-1,704	280	44	20	-42	101	-2
채권형	78,471	5,655	1,373	105	552	82	40	155
MMF	110,926	28,105	9,397	2,192	1,894	521	-958	-1,536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4/7(화)	4/8(수)	4/9(목)	4/10(금)	4/13(월)
한 국	3,531	717	972	40	84	140	263	251
대 만	3,650	-116	194	65	-212	-40	120	-
인 도	6,200	200	260	41	-43	38	-	-
인도네시아	554	118	223	37	20	-28	-6	-
태국	-221	36	200	21	62	9	-8	-
남아공	1,641	336	117	119	-93	8	86	-
필리핀	1,089	21	-2	15	-8	-	-9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4년말	4/6(월)	4/7(화)	4/8(수)	4/9(목)	4/10(금)	4/13(월)
회사채 (AA-)	2.43	1.97	1.98	1.98	1.95	1.96	1.98
회사채 (BBB-)	8.26	7.87	7.87	7.82	7.85	7.86	7.87
국고채 (3년)	2.10	1.71	1.72	1.73	1.70	1.71	1.73
국고채 (5년)	2.28	1.79	1.81	1.82	1.78	1.80	1.83
국고채 (10년)	2.60	2.07	2.10	2.11	2.08	2.07	2.10
미 국채 (10년)	2.20	1.90	1.88	1.90	1.92	1.95	-
일 국채 (10년)	0.33	0.34	0.36	0.36	0.37	0.35	-
원/달러	1,099.30	1,084.80	1,088.50	1,091.00	1,092.30	1,092.70	1,098.60
원/엔	920.30	912.29	905.05	909.77	899.44	909.07	913.98
엔/달러	119.45	118.91	120.27	119.92	120.33	120.20	120.20
달러/유로	1.22	1.10	1.09	1.08	1.07	1.06	1.06
DDR3 1Gb (1333MHz)	1.34	1.11	1.25	1.25	1.25	1.25	-
DDR3 2Gb (1333MHz)	2.21	2.13	2.11	2.09	2.07	2.05	-
NAND Flash 16Gb (MLC)	2.18	1.92	1.92	1.91	1.91	1.89	-
CRB 지수	233.24	220.58	222.41	216.94	216.68	217.67	-
LME 지수	2,907.6	2,755.4	2,772.2	2,755.5	2,751.2	2,771.0	-
BDI	782	588	583	580	580	580	-
유가 (WTI, 달러/배럴)	53.61	52.14	53.98	50.42	50.79	51.64	-
금 (달러/온스)	1,185.50	1,198.50	1,211.00	1,207.25	1,194.80	1,207.35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6	7	8	9	10
	美> Kocherlakota 연준이사 연설	日> BOJ 통화정책회의 (0.1%, n/a, 0.1%) 2월 BOP 경상수지(십억엔) (1,440.1, 1,196.0, 61.4) 유럽> 3월 소매판매 MoM (-0.2%, -0.2%, 1.1%)	韓> 금통위 금리 결정 (1.75%, 1.75%, 1.75%) 독일> 2월 산업생산 SA MoM (n/a, 0.1%, 0.6%)	中> 3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1.4%, 1.3%, 1.4%)
13	14	15	16	17
日> 2월 기계수주 MoM (-0.4%, -2.2%, -1.7%) 中> 3월 수출 YoY (-14.6%, 8.2%, 48.9%) 3월 수입 YoY (-12.3%, -11.3%, -20.1%)	美> 3월 소매판매 추정 MoM (n/a, 1.0%, -0.6%) 中> 3월 M2 통화공급 YoY (~15일) (n/a, 12.4%, 12.5%) 3월 신규대출 (~15일, 십억 위안) (n/a, 1,040, 1,020) 실적발표> 美 존슨앤존슨, 인텔 제이피모간체이스, 웰스파고	유럽> ECB 통화정책회의 中> 1분기 GDP YoY (n/a, 7.3%, 7.0%) 3월 광공업생산 YoY (n/a, 7.0%, n/a) 美> 3월 광공업생산 MoM (n/a, -0.3%, 0.1%) Bullard 연준이사 연설 독일> 3월 최종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0.3%, 0.3%) 실적발표> 美뱅크오브아메리카, 델타 에어라인스	美> 3월 주택착공건수(천건) (n/a, 1,040, 897) Lacker 연준이사 연설 실적발표> 美 유나이티드헬스 그룹,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골드만 삭스, 넷플릭스 씨티그룹, 블랙록	美> 3월 소비자물가지수 MoM (n/a, 0.3%, 0.2%) 4월 예비 미시간대 소비자지수 (n/a, 93.7, 93.0) Lockhart 연준이사 연설 유럽> 3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0.1%, -0.1%) 실적발표> 韓 하나금융지주 美 GE, 씨게이트 테크놀로지
20	21	22	23	24
	독일> ZEW 서베이 예상	日> 3월 무역수지 美> 3월 기준주택매매	韓> 1분기 GDP 잠정치 中> 4월 예비 HSBC 제조업 PMI 유럽> 4월 예비 마켓 제조업 PMI 독일> 4월 예비 마켓 제조업 PMI 美> 4월 예비 마켓 제조업 PMI 3월 신규주택매매	美> 3월 내구재주문 독일> IFO 기업환경지수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